

# 우리의 國立公園

吳 輝 泳



우리 애국가에도 “화려강산” 이라 노래하고 있거니와 확실히 우리나라는 금수강산이란 표현이 지나치지 않을만큼, 마치 비단 실로 수놓은 그림처럼 아름다운 강산임엔 틀림 없다.

부존자원이 많지 않다는니 국토가 비좁다는니, 제나라 강산을 없신여기는 말을 듣기도 하지만 아름다운 경관은 왜 천혜의 자원이 아니며 4계절이 뚜렷하고 오밀조밀한 산과 강과 들판 그리고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 강산을 어느 누가 넓고 황량한 사하라 사막과 바꾸자 하겠는가. 우리 조상님들이 지난 5천년간 대대로 살아왔고 지금 우리가 삶을 누리고 있으며, 또 우리의 후손들이 역만

년을 살아가게 될 보금자리인 삼천리 금수강산이야말로 무엇과도 비길수 없고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소중한 겨레의 터전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소중한 국토를 알뜰하게 보존하고 가꾸기 위하여 정부는 일찌기 공원법을 제정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생태계가 파괴·오염되지 않도록 힘쓰고 있다. 이같은 일은 지극히 당연하면서도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것이다.

1967년 지리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것을 필두로 현재까지 전국의 국립공원이 18개소, 도립공원 21개소, 군립공원 23개소 그밖에 자연공원은 국토면적의 4.3%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이제 정부는 국립공원으로 2개소를 더 추가지정하여 총20개소로 늘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듣는다. 국립공원의 수를 늘려서 잘 보호하고 가꾸고 다듬겠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만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잘 가꾸고 보호하겠다는 것이 실속 없이 공연한 숫자의 증가에 그치는 일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는 말은 인구조절을 위한 표어이거나, 국립공원의 경우도 국토와 국력에 비해 적절한 수의 국립공원을 지정하여 진실로 국립공원답게, 누구앞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게, 깨끗하고 아름답고 건강하게 잘 보존된 그런 국립공원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국립공원들인 지리산, 설악산, 한려해상공원등을 둘러보는 사람이면 종종 가슴 답답할 풍경에 접하였으리라 짐작한다. 산야의 곳곳이 불법개간 되었는데가하면 쓰레기더미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산란하며 희귀수목이나 조수의 도벌과 살상이 자행되어, 이것이 과연 국립공원인가 하는 의문이 저절로 솟구치게 하는 것이다.

올림픽을 치른다는니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문화국민이니 하는 말이 걸치레나 공염불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무궁화 다섯개를 단 특급호텔이면 뉴욕이나 파리의 특급호텔과 비슷한 수준, 한국의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인물이면 동경이나 런던의 대학에서 학위받은 사람과 상응한 실력자이어야 하는 것처럼, 한국의 국립공원이면 미국이나 스위스의 국립공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존되어야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닐까. 적어도 우리나라는 지난 91년간의 근대올림픽 역사상 열여섯번째로 올림픽대회를 개최하게된 문화국가이지 이제는 미개발국가도 후진국도 아닌 것이다.

참고로 외국의 국립공원 숫자를 알아보면 미국 48, 영국 10, 이태리 4, 일본 28, 대만 4개소 등이다. 이런 자료로 미루어볼때 우리나라의 18개소는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나, 나라마다 각기 특성에 따라 공원을 지정하는 것이니 숫자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하더라도 우선 아름답고 내실있게 보존될 수 있도록 국민과 전문기관과 정부가 함께 힘쓰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 믿어마지 않는다.

[農工博·本會副會長·漢陽大環境科學大學院教授·國立公園委員]